

# 건강한 태닝 톤 연출하는 브론즈 메이크업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는 태양 빛에 어두워진 피부 톤이 회복되는 동안 브론징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다. 평소 사용하던 파운데이션 톤을 낮추고 셰이딩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면 한층 건강한 톤을 뽑낼 수 있다. 태닝 톤 연출하는 브론즈 메이크업을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co.kr)이 소개했다.

### ■ 나이트 아웃을 위한 아이 브론즈 룩

브론즈 하면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이 떠오르지만, 섹시미 풀풀 풍기는 브론즈 메이크업은 밤에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브론저를 새도처럼 사용하면 그윽 지수를 100% 충전할 수 있기 때문.

시머 펄이 낭랑하게 든 브론저를 눈두덩 전체에 바르는데,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은 눈과 눈썹 사이가 멀기 때문에 과감히 눈썹에 닿기 직전까지 넓게 발라도 괜찮다. 넓은 새도 브러시를 이용해 문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는 것이 생명.

여기에 아이라라인만 그리고 마무리해도 충분하지만, 글리터를 중앙에만 더해주면 화려함이 2배! 브론즈 무드를 더하고 싶다면 파운데이션에 브론저를 살짝 섞어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투명도 높은 시어한 텍스처의 브론저를 블러셔처럼 광대뼈에 넓게 한 번 더 얹어주자.

### ■ 쿨 톤을 위한 쿨 브론즈 룩

'브론즈 메이크업'의 대명사인 썬-한 오렌지빛 피부는 쿨 톤과 상극이다. 요즘은 붉은 기 속 빠진 핑크나 베이지 톤의 브론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화장대 구석엔 오렌지 브론저를 심폐 소생하고 싶다면 브론저 위에 핑크 블러셔를 레이어링해 보자. 쿨한 톤의 핑크 블러셔를 사용하면 따뜻한 색감이 중화되며 얼굴이 동동 뜨는 어색한 느낌을 줄일 수 있다.

블러셔를 진하게 발색하기보다는 노란 기를 커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가 부드럽고 텐션이 적은 파우더 브러시나 팬 브러시를 이용하자.

여기에 핑크 빔을 내뿜는 하이라이터와 쿨 톤에 착붙이면서 여름 바이브까지 더할 수 있는 시원한 블루 톤 아이 메이크업까지 해주면 쿨내 풀풀 브론즈 룩 완성!

사진=코스모폴리탄

**HUNNY BROWS**  
 Vivian OC/LA Microblading 반영구  
 후센스있게! 옛지있게 10년 젊어지세요!\*

3D눈썹/속눈썹    두피문신  
 입술문신    아이라라인

\*Certified/Licensed PMU\*

**909.837.5674**  
 7041 West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JSK 건축, 플러밍**

물  
새  
요  
:

Lic #1049049 **재해복구 전문업체**

**제이킴**

**714.249.5469**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SUMMER EVENT**

8월 달! 한달간  
부엌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급 쿠쿠 비데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 계약금액 만불 이상

CUCKOO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가**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http://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mailto: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